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신자의 삶은 육신의 생각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좇을 것인가?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이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롬 8:5)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육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가리킨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죄의 본성을 뜻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본래부터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육신의 생각을 좇아서 살 수밖에 없다.

첫째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좇고 따른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끔가다 육신을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죄의 본성에 솔직하고 충실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은 다 육신의 일, 죄밖에 없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이처럼 육체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현저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죄의 가공성과 사악함은 밖으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떼거지로 행하면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일반화, 보편화시키려는 사악함이 있다. 그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령,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들은 다 성적인 죄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 죄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계속 드라마나 책이나 영화나 인터넷을 통해 자연스러운 보편화된 감정이라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한 분쟁과 분리, 당 짓는 것도 육체의 일이라고 했지 성령을 따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니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영의 일이며 성령을 따르는 일이지, 분열은 육신의 생각이 낳는 육체의 일, 곧 죄인 것이다. 술 취함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 무슨 고민과 문제가 있으면 술집에 가서 취하고, 줄 담배 피우는 것이 고정 코스이다. 그러다보니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술, 담배를 먼저 찾는 것이다. 그것이 죄악된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 육체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일로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둘째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롬 8:6).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롬 8:13). 육신의 생각과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하면 죄악된 우리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겨지는 죽음, 이 땅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은 삶을 살게 되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불못에서 영원토록 살게 됨을 말한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이 죽어 장사지낸 바 되었고,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박은 성도들이지만 육신의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좋아 보이는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다가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나 육체의 일을 좇아 따라가고, 우리의 오감각이나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여 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죄와 죽음을 날기 때문이다. 그래도 육신의 생각을 좇아 따를 것인가?